

-(으)ㄴ 나머지

너무 ~한 나머지

감정이나 상태가 극단에 이르러 어떤 결과가 뒤따랐음을 나타냅니다. 나머지는 '남은 것'이라는 뜻으로, 여기서는 넘쳐흐러 행동으로 이어진 감정을 가리킵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	-(으)ㄴ 나머지	놀라다 → 놀란 나머지
형용사	-(으)ㄴ 나머지	기쁘다 → 기쁜 나머지
하다 동사	-한 나머지	긴장한 나머지
ㄴ로 끝남	ㄴ 탈락	힘들다 → 힘든 나머지
앞 절은	극단적이어야 함	조금 놀란 나머지는 틀림
구어 형태	너무 -아서	너무 놀라서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에는 과거 관형형 -(으)ㄴ 나머지를 씁니다: 놀란 나머지, 긴장한 나머지. 형용사도 -(으)ㄴ 나머지를 씁니다: 기쁜 나머지. ㄴ 어간은 ㄴ이 탈락합니다.

앞 절은 극단적이어야 합니다. 강한 감정이나 한계까지 간 상태여야 하며, 가벼운 감정으로는 이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: 조금 놀란 나머지는 어색합니다.

결과는 보통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며, 후회스러운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: 긴장한 나머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.

글이나 격식 있는 서술에 씁니다. 대화에서는 너무와 함께 -아서 써서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: 너무紧张해서 잊어버렸어요.

■ 예문

- 1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
- 2 긴장한 나머지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.
- 3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났습니다.
- 4 화가 난 나머지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.
- 5 서두른 나머지 지갑을 놓고 왔어요.
- 6 일이 힘든 나머지 건강을 해쳤다.

■ 비교

-아서/어서

-아서는 어떤 원인이든 나타내지만, -(으)ㄴ 나머지는 원인이 극단적이고 결과가 지나쳤음을 강조합니다. 또한 확실히 문어적으로 들립니다.

긴장해서 잊었어요. (말) / 긴장한 나머지 잊어버렸다. (글)

-(으)ㄴ 정도로

정도로는 기준을 제시해 정도를 나타내고, 나머지는 그 정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. 문장의 방향이 다릅니다.

말도 못 할 정도로 놀랐어요. (말을 못 할 만큼 놀랐다) / 놀란 나머지 말도 못 했어요. (놀라서 결국 말을 못 했다)

-는 바람에

바람에는 외부의 사건을 탓하고, 나머지는 통제를 벗어난 자신의 내적 상태를 탓합니다.

차가 막히는 바람에 늦었어요. (교통 상황) / 서두른 나머지 놓고 왔어요. (나의 조급함)

■ 주의

✗ 조금 놀란 나머지 뒤를 돌아봤어요.

○ 조금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.

이 표현에는 극단적인 상태가 필요합니다. 가벼운 반응에는 그냥 -아서 씁니다.

✗ 일이 힘들은 나머지 건강을 해쳤다.

○ 일이 힘든 나머지 건강을 해쳤다.

ㄴ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ㄴ 앞에서 ㄴ이 탈락합니다. 힘든 일, 만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.

✗ 야, 나 놀란 나머지 소리 질렀어.

○ 야, 나 너무 놀라서 소리 질렀어.

-(으)ㄴ 나머지는 문어나 격식체에 속합니다. 편한 대화에서는 어색하게 거창하게 들립니다.